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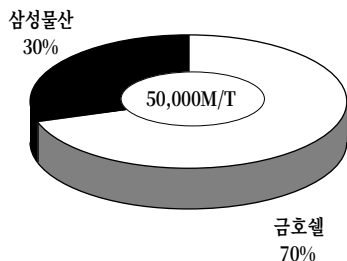
금호셀, 페놀 독점공급 "붕괴"

삼성물산 6월이후 3000톤 수입 ... 국내수요의 30% 점유

삼성물산이 96년6월부터 페놀의 벌크수입을 본격화함으로써 금호셀의 독점체제가 붕괴, 내수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페놀시장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삼성물산이 국내수요의 20~30% 수준까지 수입을 확대할 예정이고, 금호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해오는 등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페놀 가격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페놀 시장점유율 전망(1996)



또 국내 페놀 수요기업들의 경우 91년이후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어오고, 최근들어 경기침체로 페놀을 사용한 제품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원료비 절감 및 물량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수입산 선호도가 높아 페놀 수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국내유일의 페놀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셀은 91년 7만톤 증설이후 자가소비분과 수출을 제외한 5만톤을 국내시장에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6년6월부터 삼성물산이 북미, 유럽으로부터 페놀 수입을 본격화해 6월20일 1000톤을 비롯 3차례에

걸쳐 2800톤을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수요의 30%인 1만5000톤까지 수입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국내 페놀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95년12월 톤당 84만원을 형성한 이후 보합세를 보여오던 페놀가격이 7월들어 78만원으로 7.1% 하락했으며, 삼성물산의 내수공급가격이 금호셀보다 평균 4% 낮은 75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의한 내수가격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96년6월 이후 삼성물산의 주 수입처인 유럽지역이 폴리카보네이트용 페놀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입량 확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월 삼성물산의 페놀 판매량은 내수 500톤, 수출 500톤 등 1000톤에 이르며 3000톤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페놀가격의 하락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의 경우 5월말 기준 톤당 30~40달러 상승, CFR China 640~650달러로 상승한데 이어 7월 정기보수 및 일본 Chiba Phenol공장 트러블 등으로 8월에는 750~760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도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수요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원료인 페놀 수요가 점차 확대, 공장가동률이 100%에 이르는 등 수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가격이 CFR NWE기준 753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가격 하락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화학저널 1996/10/28>

